

프랑스와 영국의 원전분야 협력 협정 체결내용

(2012. 2. 20)

-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과 영국 카메론 수상은 2월 17일 파리에서 양국 간 원자력 에너지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
 - 사르코지 대통령은 원자력 산업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대선 레이스에서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 영국은 자국 내 원전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1,500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

1 EDF의 영국 원전 프로젝트에 영국 기업 참여

- (EDF 원전건설) 프랑스 발전업체인 EDF는 2008년 말 영국 발전업체인 BE를 인수하였으며, 이후 영국에서 신규 원전(4기) 건설을 추진해 오고 있음.
 - EDF는 영국 남부지역인 Hinkley Point에 원자력 발전소 2기를 건설하고 있는데, 동 프로젝트에 프랑스 원전업체 Areva가 개발한 제3세대 원전(EPR: Evolutionary Power Reactor)를 영국 최초로 도입하였음.

- * EPR은 Areva가 개발한 3세대 가압 경수로 방식의 원전 기술로서 우리나라가 개발하여 UAE 원전에 적용될 APR(Advanced Power Reactor) 1400과의 경쟁 기술임.
- * APR과 EPR 모두 차세대 원전으로서, 차세대 원전은 기존 원자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안전설비를 최대한 보강하고, 최적화 설계로 경제성을 극대화시킨 원전임.

- (영국기업 참여) 영국 엔지니어링 회사 Rolls-Royce는 Hinkley 프로젝트에 4억 파운드, 기타 영국기업이 동 프로젝트에 115백만 파운드 규모의 계약을 수주
- 영국은 프랑스와의 원전분야 협력을 통해 자국 내 원전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1,5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

(영국 수상의 성명문, Le Point지)

Cameron 수상은 파리로 출발하기에 앞서 영국에서 방송된 성명문에서 “우리 영국과 프랑스는 상업용 원자력 부문에서 2대 강대국임. 양국은 원전산업 부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핵 안전성을 제고하며, 영국에서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공유할 것임. 오늘 서명하게 될 협약을 통해 1,500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발표

② 원전기술 공유 및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 협력

- EDF는 Hinkley Point의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과 관련하여 프랑스 Areva, 영국 기업인 Kier BAM 및 Bridgewater College와 2월 17일 협약을 체결
- Kier BAM과는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는 지역의 준비 공사와 관련하여, Bridgewater College와는 Somerset에 국제적 수준의 원자력 인력 양성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1,500만 파운드를 투자하는 것에 관해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한편, 이번 EPR 프로젝트에 장비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영국 Rolls-Royce는 프랑스 Areva와 원자로와 연료 사이클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파리사무소]